

'95 국제사료곡물 생산 및 가격동향



문철명

(현대 사료(주) 대표
한국사료협회 원료구매위원장)

1. 생산동향

1) 옥수수

94/95년도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2억5천4백여만톤으로서 수확을 입었던 전년도 보다 무려 57.8% (9,300여만톤)나 증가하였고, 사상 최대의 풍년이 라고 했던 92/93년도 보다도 1,342만톤이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대풍년으로 세계의 옥수수 생산량은 19%, 교역량은 21%나 모두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표 1> 참조)

그러나 1986년 부터 우리나라에 옥수수를 수출하기 시작하여 1990/91~1993/94사이의 3년동안에는 연평균 450여만톤이나 공급하였던 중국은 자국 내의 곡물소비량 증가로 작년 하반기 부터 수출량을 줄이더

<표 1> 세계 및 주요국별 옥수수 생산량 및 수출량

(단위 : 천톤)

국가구분		1990/91	1991/92	1992/93	1993/94	1994/95
미국	생산	201,534	189,886	240,846	161,146	254,270
	수출	44,496	40,597	41,766	32,800	44,450
중국	생산	96,820	98,770	95,380	102,700	104,000
	수출	6,880	9,974	12,623	11,000	5,000
남아공	생산	8,300	3,125	9,600	12,875	9,000
	수출	739	800	0	3,000	2,500
EU	생산	21,883	26,707	29,112	29,150	26,930
	수출	91	344	1,186	2,000	7,310
세계	생산	477,855	486,927	532,859	467,190	555,620
	수출	59,116	62,603	62,017	54,877	66,250
	재고	79,955	80,850	104,803	68,690	93,070

* 위 내용은 '94년도 11월말 현재기준이며 94/95년도의 수치는 예상치임

니 마침내 최근에는 공식적으로 수출을 금지하고 미국의 옥수수를 수입까지 하게 되었다. 중국이 사료용 곡물의 수출국가에서 수입국가로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몇 년전 부터 예견되어 왔었던 일이나 예상보다는 2~3년 앞당겨서 갑자기 찾아온 것이다. 그동안 가까운 수송거리에서 저렴한 가격

으로 구입하던 것을 다시 떨고 먼 미국으로 부터 비싼 수송비를 지불하면서 구입할 수 밖에 없게 된 우리로서는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된 것이다.

더구나 93/94년도에 옥수수를 1,288만톤을 생산하여 그중 300만톤이나 수출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작년 12월부터 계속되는 한발때문에 94/95년

도 생산량이 <표 1>에서의 900만톤보다도 훨씬 낮은 500만톤 미만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만약에 대비 옥수수 수입선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이변이 없는 한 '95년도는 물론 그후로도 상당기간동안 가격과 관계없이 오로지 미국 옥수수에만 크게 의존해야만 될 처지가 된 것이다.

2) 사료용 소맥

1992년도 여름, 캐나다 서부 지역의 소맥이 냉해를 입어 생산량의 75%나 되는 엄청난 량이 품질이 저하되어 식용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료용으로 전환되었다. 호주 역시 저급 품질소맥의 생산량이 증가하여 1993년도 부터 1994년도 전반기까지는 캐나다와 호주가 우리나라에서 사료용소맥의 판매 각축전을 벌렸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사료업계는 과감하게 소맥을 배합사료의 원료로 대량 사용한 덕분에 1993년도 미국의 대홍수로 옥수수의 국제가격이 상승했을 때에도 이로 인한 배합사료 제조의 원가상승 요인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가 있었다.

66

**옥수수 수입선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이변이 없는 한
'95년도는 물론
그후로도
상당기간동안 가격과
관계없이 오로지 미국
옥수수에만 크게
의존해야만 될 처지가
된 것이다.**

99

그러나 1992년도 이후부터 생산된 소맥은 날씨의 호조로 품질이 대부분 양호하여 사료용소맥의 생산은 감소되었기 때문에 1994년도 후반기에는 재고가 거의 바닥이 나서 C&F 톤당 110불 이하였던 가격이 135불 이상으로 급상승하여 구매가 완전히 중단되었다. 금년에는 캐나다 등에서 날씨 때문에 품질이 낮은 소맥이 대량 생산이 된다면 금년 가을경 부터 소맥을 다시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미국산 옥수수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호주는 93/94년도에 소맥을 1,690만톤을 생산하여 1,371만톤을 수출하였으나 94/

95년도에는 최근 계속된 한발 때문에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곡물을 도리어 수입해야 될 처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95년도의 우리나라 사료업계는 곡물사료원료에 있어서 호주산 소맥을 사료원료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보리

유럽에서는 사료용 곡물원료로 옥수수, 소맥, 보리를 거의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원래 보리는 사료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금년도 상반기에 사료용으로 보리를 수입전량 2%의 할당관세로 처음으로 수입할 수 있게된 것은 늦게나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우리 사료업계는 정부에 보리의 수입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간의 이해부족으로 보리 수입개방이 지연되어 구입 적기를 놓치고 이제 사료용 소맥 가격이 급상승하여 오퍼(offer)마저 끊어지고 세계의 보리 생산량도 감소(<표 2>참조)하여 가격이 너무 비싸진 지금에 와서야 수입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 수입할 가

〈표 2〉 전체 보리의 주요 국가별 생산량 및 수출량

(단위 : 천톤)

국가구분		1990/91	1991/92	1992/93	1993/94	1994/95
EU	생산	50,844	51,531	43,323	42,632	38,810
	수출	7,053	8,260	5,544	6,500	6,000
캐나다	생산	13,441	11,617	10,919	12,972	11,700
	수출	4,460	3,379	2,859	3,900	4,000
미국	생산	9,192	10,110	9,970	8,714	8,172
	수출	1,507	2,090	1,611	1,600	1,300
호주	생산	4,108	4,530	5,396	6,815	2,400
	수출	2,683	1,950	2,600	3,100	500
세계	생산	177,980	169,064	165,655	169,915	160,912
	수출	18,523	18,598	15,341	17,515	15,240
	재고	32,287	33,600	36,710	37,302	30,596

* 위 내용은 '94년도 10월말 현재기준이며, 94/95년도의 수치는 예상치임

치가 없는 현재의 실정이 매우 안타깝다 하겠다. 옥수수와 보리의 할당관세가 각각 1%, 2% 일때 보리의 C&F가격은 옥수수 가격의 85% 이내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옥수수 가격이 130불 이라고 볼때 보리의 가격은 110불 미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년 7월과 8월에 86~87불대 이던 보리의 가격이 지금은 130불 가까이 오르내리면서 옥수수 가격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94/95년도 세계의 전체 보리 생산량과 수출량은 최근 5년간에 있어서 최저이며, 93/94년도에 사료용 보리를 183만톤을 수출하였던 호주는 한발때문에 금년에는 수출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대두 및 대두박

1994년도에 미국은 옥수수와

더불어 대두도 풍작을 이룩하여 전년도 보다 무려 34%나 증가된 6,865만톤이나 생산하였고, 이러한 풍작으로 수출량도 전년도 보다 32%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대두과종과 생육상황도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산 대두를 대량 구입키로 되어있는 멕시코가 외환정책의 실패로 경제가 혼란에 빠져서 구매이행이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에 '95년도의 사료용 단백질 원료의 수급과 가격은 대체로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자국내의 사료소비량이 증가하여 대두박 수출은 고사하고 미국산 대두박 수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도 94/95년도 대두 생산량이 전년도의 370만톤에서 300~330만톤으로 감소되어 대두를 수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는 점과 배합사료에 단백질 함량이 높은 소맥 대신 단백질 함량이 낮은 옥수수를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단백질 원료가 더 많이 소요된다는 등이 가격지지의 요인이 되고 있다.

2. 가격동향

1) 옥수수

'95년 1월 17일 현재 미산옥수수의 톤당 c&F 가격은 140.60불로서 '94년도에 실제로 구매된 옥수수의 평균가격 117.60불보다 19.56%나 높고, 소맥평균가격 103.70불보다 35.6%나 높아졌다. 때문에 옥수수를 배합사료에 60% 사용경우 옥수수 가격 인상만으로도 '95년도 배합사료 제조원가는 전년도 보다 kg당 14.38원이나 상승된다.

$$* \text{계산근거} : 140.60 - \{ (117.60 + 103.70) \div 2 \} = 29.95\text{불}$$

$$29.95 \times 60\% \times 800\text{원 (환율)} \div 1000\text{kg} = 14.38\text{원/kg}$$

전술한바와 같이 미국의 유사이래 최대 옥수수풍작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옥수수 수출에서 수입으로의 전환, 세계의 사료용소맥 재고 고갈, 한발에 의한 남아공의 옥수수 생산감소와 호주의 사료용보리 공급감소 등으로 미국은 유일한 옥

<표 3> '94년도 옥수수·소맥·대두박의 톤당 C&F가격 (도착월 구매가격 기준)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12월	평균
옥수수	111.69	110.64	121.41	120.74	120.23	118.49	118.68	117.62
소 맥	108.65	93.90	97.70	108.80	109.18	108.80		103.76
대두박	225.62	222.85	230.50	214.25	220.30	232.42	192.20	217.85

이미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2) 근채류 및 건초의 수입

일본에서 사육되고 있는 전체 소의 숫자는 약 500만두이며 그중 젖소가 약 200만두 된다. 일본은 이들 반추동물용으로 알팔파를 비롯하여 건초류를 매년 200여만톤씩 수입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280만두의 소와 그중 55만두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연간 건초류 수입량은 10만톤도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알팔파는 수입이 자유화 되었지만, 기타 건초류와 옥수수숙대, 옥수수줄기, 땅콩부산물 같은 조사료원료는 WTO가 시작되는 금년도 수입량(CMA물량)은 19,280톤으로 제한되고 관세도 5%나 부과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이다. 조사료가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서는 낙농업과 한우비육사업은 불가능하고 국내산은 근본적으로 크게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섬유질원료의 수입을 개방하고 무세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정부에 간곡히 건의하는 바이다. 

수수공급국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여름까지는 옥수수가격이 135불 전후로 등락할 것이나 중국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멕시코의 재정위기가 회복되면 더욱 상승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단지 겨울이 지나고 경기가 누그러져 선임이 하락하면 그만큼 가격하락이 전망된다.

2) 대두 및 대두박

'95년 1월 17일 현재 미국산 대두박의 가격은 단백질 48%가 235.53불, 44%가 221.19불이며, 남미와 인도산의 가격은 215불 전후로서 전술한 바와 같이 금년 봄 남미의 대두작황에 큰 변화가 없는 한 현재 수준의 가격을 중심으로 등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정부에 대한 건의

1) 사료용 원료에 대한 면세적용

사료자원의 자급능력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실정에 있는 일본은 이미 40년전인 1954

년도부터 사료용 원료를 대부분 무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왔으며 지금도 1~5%를 부과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6개월마다 할당관세를 정하고 있어서 3~5개월 후의 사용량을 미리 구매해야 하는 사료업계로서는 어느 원료를 어느 가격 이하로 구매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구매시기를 놓침으로 입는 손실이 매우 큰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세금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는 수 없이 사료용 원료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나, WTO의 출범과 함께 외국축산물이 갈수록 낮은 가격으로 수입이 증가될 이 시점에서는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료용 원료에 대해서 전면 면세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본다.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 마당에 비싸더라도 국산 축산물만을 애용하라고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데도 한계가 있으며, 국내 축산업계와 사료업계가 무너진 다음에 면세를 해봤자 그때는